■ 남해안 선벨트 개발 어떻게

24조 재원 방안 없어 민자유치 관건

동북아 경제·물류, 해양관광 거점 육성

생산유발효과 48조·일자리 22만개 창출

정부가 21일 심의, 확정한 '지역발전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지역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지역발전계획은 지난해 발표됐던 기본구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족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24조3000억원이라는 재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민자유치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해안 선 벨트, 전남지역은 어떻게 개발되나='남해안권 선벨트 종합계획'은 24조3000억원을 투입, 남해안권을 ▲동북아 경제·물류 ▲해양 관광 ▲영·호남 협력 발전 등 세 가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생산유발효과가 48조원에 이르고 부가가치효과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로 인해 2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려수도권의 경우 청정해역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단지·친환경 리조트·가족휴양단지 등이 들어선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은 판타지아일랜드를 목표로 테마섬과 해양레포츠산업, 크루즈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남도문화권은 슬로시티, 녹차 및 한방 등을 산업화해 휴양·헬스케어벨트로, 고흥은 항공우주 스페이스 단지로 특화해 개발한다.

또 진도~진해~거제, 해남~진도~통영 등은 이순신 등 역사문화, 어촌문화·음악당·전시관 등 남도고유문화와 문화인프라 및 녹색길, 공룡화석지 등 자연자원을 결합한 테마벨트로 육성한다.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한 신안과 엔진·부품 산업 등이 활성화된 영암지역을 연계, 조선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고분자 융복합(고흥), 마그네슘 부품(보성) 등의 첨단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영암·광양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생태산업단지로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양·부산항을 산업·비즈니스·관광·IT 등이 융합한 포트 비즈니즈 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부두를 확충하고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축자재 생산·유통 거점인 하우징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여수·목포 등은 노후 항만을 재정비하면서 크루즈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남해안 해안선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목포~부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남해안 일주 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는 한편, 광주~완도, 통영~거제간 내륙 연계 고속도로망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다도해·한려수도권내 연륙·연도교개설도 추진해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기업지방이전·고용보조금 확대=정부는 현재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가 기업 투자수요에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1106억원 규모인 기업이전 및 고용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2000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신규투자에만 한정됐던 보조금 제도를 본사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되면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재원, 현실화될까=이날 발표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선벨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내놓은 기본구상안을 조금 구체화 시켰다는 것 외에는 24조3000억원의 재원 확보 방안이나 사업비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동·서·남해안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확정짓겠다는 복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상임고문인 한명숙 전 총리가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층 결집하면 어쩌지?…"

민주 선거 악재 우려 '北風' 경계령… 대응 방법엔 온도차

민주당에 '북풍(北風)' 경계령이 내렸다. 천안함 침몰사고 후 '북한 개입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장엽 암살조' 검거사건까지 터지면서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는 대북 안보 이슈가 보수층의 결집을 유발하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 여당이 정치적 의도로 북한을 활용하려한다는 논리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든 안보무능의 결과라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에 나와 천안함 사고의 북한 연루설과 관련,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원인규명과 책임 문제도 있지만 안보체계 부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그 파급력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과거처럼 북풍에 휘둘릴 국민이 아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대북 관련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요소가 되거나 정치적 의사를 바꿀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당내에서도 대북 대응기조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전날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의 석상에서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증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의 프레임에 야당까지 휩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핵심 당직자는 "이미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꾸 북한을 편든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파硏·우정사업센터 연내에… 한전은 내년 상반기 착공

나주 혁신도시 '반쪽' 될라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6% 추가 인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들어설 전파연구소·우정사업정보센터·사립학교연금공단 등의 청사가 연내 착공된다. 또 기업도시는 사업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16개 이전 기관 중 전파연구소·우정사업정보센터·사립학교연금공단의 이전 청사가 연내 착공된다.

전국적으로는 157개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30여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가 연내 착공이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혁신도시에 이전할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의 경우 내년 상반기 청사 착공 계획을 밝혀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 KDN(내년 하반기), 한전 KPS(내년 상반기) 등도 올해 착공 계획이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용지 분양가를 14.3% 낮춰주기로 한데 이어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는 16%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원, 녹지면적 조정과 유상공급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용지 가격을 낮추기로 하고, 9월중 혁신도시별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186만8388㎡(25.4%)인 녹지를 4만㎡줄이고 유상 공급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3㎡당 150만원 수준인 분양가를 138만원 정도 낮추겠다는 것.

그러나 녹지 면적 축소 방침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춰 혁신도시를 친환경적인 전원 도시로 가꾸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또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한중단지(1773만㎡)에 대해 법적 최소면적인 500만㎡로 축소해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개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J프로젝트)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조기 추진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대책은 빠져있어 '말뿐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종시 물 건너 가나

한나라 '중진협의체' 소득없이 활동 종료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1일 40여 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중진협의체 멤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중진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매주 두 차례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절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논의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진협의체는 이날 정양석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정몽준 대표에게 논의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22일 최고위원회의에 그동안의 활동 결과 등을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세종시 문제의 4월 국회처리라든지 당론변경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 신청자 없는 97곳

한나라, 후보자 추가 공모

한나라당은 21일 공천 신청자가 없는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가공모한다고 밝혔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지역 구청장 및 지방의원, 경기.대구지역 일부 지방의원 등 97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22~23일 추가로 공천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추가공모 대상지역은 광주 구청장 선거구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23곳, 기초의원 69곳이다. 공천신청 접수는 해당 시·도당별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11-0014
광주C.C
최 권 주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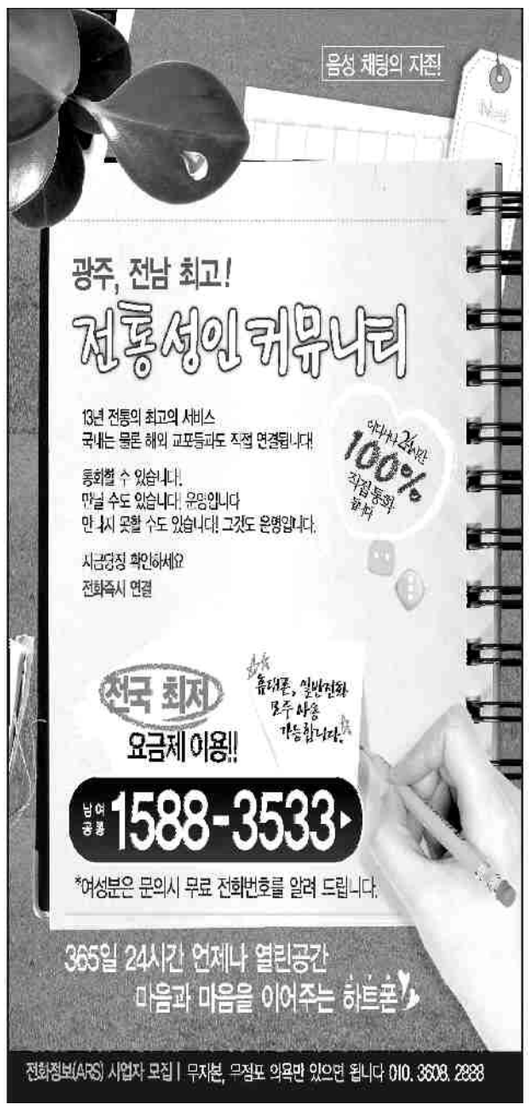
주식회사 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2010년 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 광일테크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 주식회사 지아이티개발(가칭)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04월 22일
광일테크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0-28, 6층
대표이사 김 희 식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10년 4월22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00원을 금 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0주 보통주식 중 1,995,000주를 1주의 금액 10,000원씩으로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임의 소각하고 2,000,000주를 5,000주로 감소 할 것을 결의 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대한도시개발주식회사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8층
대표이사 황 재 순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함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 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벽진동 - 창고용지/500평정도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접
◉중흥동 - 200평/대로접(100%대출가) 상담후결정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접(100%대출가)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접(100%대출가)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 /대로접(100%대출가)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접 (물류창고 적합)
◉만평 풍암지구 수완지구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 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서구청 맞은편(1층 • 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